

이마를 친 메토끼

어느 동산에 타발많은 메토끼가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동산에서는 모임을 열고 땅속보물을 모조리 찾아내어 지도에 표시해놓고 요긴한 때 캐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산의 모든 짐승들이 골짜기며 산등성이 그리고 고개마루와 넓은 벌들을 한 지역씩 맡아서 땅속보물을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싸리골을 맡은 메토끼는 불이 주먹만큼 부어가지고 투덜댔습니다.

《땅속보물이야 굴 잘 뚫는 두더지나 오소리한테 맡겨야지 풀과 싸리밖에 모르는 나한테까지 맡기면 어떻게 해.》

이 말을 듣고있던 노루가 조용히 타일렸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타발부터 앞세우면 성과를 거둘수가 없어. 물밖에 모르는 봉어도 보물찾기를 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야 메토끼는 훨씬 낫지. 그렇지 않은가?》

《하긴 제비한테도 보물을 찾으라고 하였더니 더 말할나위 없지요. 제비가 어떻게 땅속보물을 찾겠다고 맡겼는지 내원 참.》

《무엇이나 마음먹고 달라붙을타이지. 궁냥을 하고 또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법이야. 자, 성과를 바라네.》

노루는 자기가 맡은 살구재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동산으로 돌아온 메토끼는 부랴부랴 행장을 꾸려가지고 밤나무굴 오소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굴 잘 뚫는 오소리한테서 굴을 뚫는 묘리도 배우고 쟁기도 빌려와야 땅속보물을 찾을것 같았기때문이었습니다.

내가를 따라 타박타박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메토끼는 물속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보금, 보금, 보금》

이게 무슨 소리일가? 메토끼는 가만히 물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모여왔는지 술한 물고기들이 빙 둘러서서 보금 보금 시내물을 깨물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들아, 너희들은 거기서 무얼 하니?》

납작한 붕어가 입을 봉긋 벌리며 대답했습니다.

《땅속보물을 찾아요.》

《물을 깨물면서 땅속보물을 찾는단 말이냐?》

토끼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럼요. 우린 물을 깨물면서 어떤 보물이 녹아내리는가를 가늠하고 그 보물바위를 찾아가지요. 짹짹한건 소금바위가 녹아내린거구 비린것은 쇠돌이 녹아내린거란 말이에요.》

《거참 멋진 생각을 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메토끼는 놀라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조건 땅속보물을 찾을 생각으로 모여앉아 의논을 했더니 글썽 이런 반짝이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야, 거참 반짝이는 생각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아가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난 풀과 싸리밖에 모르다니 참.》

메토끼는 한숨을 호호 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오소리한테 땅뚜지는 쟁기를 얻으러 가는 길이야.》

《그 많은 땅을 다 뚜져보려고요?》

《할수 있나. 힘들더라도 해야지.》

물고기와 헤어진 메토끼는 또 타박타박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살구재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골짜기에서 노루가 큰 돌을 재어보며 올라가는것이 보였습니다.

《노루형님은 거기서 무얼 하세요?》

메토끼는 반가와서 물었습니다.

《오, 메토끼로구만. 보물을 찾네.》

노루는 둥근 돌을 들어서 확대경으로 살펴보고나서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흰 차돌속에 나무잎처럼 누런 황금줄기가 들어있으니 이걸 귀중한 금돌일세. 이 돌이 어디서 굴러왔는가를 알려거든 돌의 모양을 보면 된단 말일세. 돌이 동그랄수록 더 멀리서 굴러온것이고 뾰족할수록 가까이에서 굴러온 돌이란걸 말해주지. 이 돌모양을 보면 한 십리남짓한 곳에서 굴러왔다는걸 대뜸 알수 있거든. 십리만 올라가면 금바위가 있을걸세.》

노루는 좋아서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참 멋있는걸 생각했는데요.》

메토끼는 부러워서 눈을 빛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네. 수달은 모래를 이는 방법으로 보물을 찾고 제비는 구름을 몰아다가 벼락맞는 바위를 찾아내지. 그게 바로 보물바위라는거야.》

《야!》 메토끼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자넨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난 풀과 싸리밖에 모르니 뭐 다른 방도가 있어야죠. 오소리한테 땅을 뛰지는 쟁기를 얻으러 가는 길이죠.》

《그럼 아직 보물찾기를 시작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자기가 잘 아는 풀과 싸리로 보물을 찾아볼게지.》

《호호, 형님도 참, 풀과 땅속보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속보물은 돌이고 풀은 흙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힘
들어도 땅을 두지는수밖에 없어요.》

메토끼는 머리를 뒹뒹 내저었습니다.

이때 산기슭에서 오소리가 달랑달랑 걸어오고있었습
니다.

《애, 메토끼야. 너 여기 있었구나!》

오소리가 먼저 반겼습니다.

《야, 오소리구나!》

찾아가던 오소리를 만나니 친형이나 만난듯 반가웠
습니다.

《날 좀 도와주렴.》

오소리는 메고온 식물채집통을 펼쳤습니다.

《그래 무얼 도와달라는거냐?》

《식물이름을 좀 대달라는거야.》

《그거야 쉽지 뭐.》

메토끼는 오소리가 펼친 식물채집통안을 들여다보았습
니다.

《풀이로구나. 이건 속새구 이건 사라구야. 그런데 이
건 알아서 뭘하니?》

《땅속보물을 찾지 뭐. 이 속새가 많이 자라는 곳에는
불 잘 붙는 검은곰이 있고 이 누런 풀이 무성한 곳에는 요
긴한 때 쓰는 재빛곰이 있다더구나. 그러니 이 풀들은 보물
을 찾는 길안내자지. 공연히 땅을 두지며 온 산판을 헤멜
필요가 있니? 풀이랑 나무잎이랑 뜯어서 분석해보면 되는
데. 메토끼는 식물박사니까 보물찾기를 다 끝냈겠지?》

순간 메토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탁 치며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메토끼가 왜 이러니?》

오소리는 메토끼를 부축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노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만 좀 놔두게. 이마를 싸쥐고 깊이 생각하게 말아야. 메토끼는 아직 보물찾기에 손도 대지 못했다네. 자네한테 땅을 두지는 쟁기를 빌리러 가던 참이지.》

《그래요?…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날 찾아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참 모를 일이군요.》

오소리는 메토끼를 측은하게 내려다보며 일으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메토끼는 일어설 기운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가요?》

메토끼의 눈에서는 피로움의 눈물이 방울져 내렸습니다.

《글쎄 동산에서 과업을 줄 때부터 타발이 앞섰으니 신중한 생각을 해낼수가 있나. 일이란 시작부터 성근하게 받아들여야 잘되는 법이야. 이젠 풀과 나무잎을 가지고 땅속 보물을 찾는다는걸 알았으니 빨리 싸리골로 돌아가게.》

노루는 메토끼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메토끼는 보물지도를 끌내려고 부지런히 밤나무골로 걸어가는 오소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실하고 미더운 그 발걸음을 익혀두거나 하려는듯.